

# 마이스 행사 유치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개편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중·소규모 학·협회 행사 집중 지원항목 확대·온라인 행사 지원 등 개선

전북도와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 이하 재단)은 마이스 행사 유치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와 재단은 전북도의 여건을 고려해 중·소규모의 학·협회 행사를 주요 표적시장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게 인센티브 운영제도를 개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항목 확대, △지급기준 세분화, △온라인·하이브리드 행사 지급기준 마련,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우선, 마이스 행사 유치확대를 위해 지원항목을 기존 개최지원금에서 유치지원금, 홍보지원금, 개최지원금(기존 인센티브) 3단계로 확대했다.

‘유치지원금’은 마이스행사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유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홍보지원금’은 유치가 확정된 마이스행사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신설했다.

‘개최지원금’은 기존의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제도로 주최기관에 지원된다.

또한, 기존 참가자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출하던 방식에서 참가자 수, 국제회의 기준 부합성, 녹색회의(Green MICE) 인증 회의 가산 점 부여 등 지급기준을 다양화 했다.

아울러, 마이스 행사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행사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청서류 간소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마이스 전용 홈페이지 구축 예정)



2021 마이스 토크 콘서트 모습.

등 수요자 위주의 제도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존 회의·컨벤션 위주로 지원했던 것을 포상관광(Incentive Tour), 이벤트, 전시회 등도 지원대상으로 명문화해 전체 마이스 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예산이 가장 중요하

다고 하면서 수요자 니즈를 고려하고, 최근의 온라인·하이브리드 행사 트렌드를 반영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재단 이기진 대표이사는 “마이스 산업은 팬데믹 이후, 회복력이 가장 빠른 관광분야로서 전북도 여건에 맞는 적절한 전략수립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전북도가 전국 마이스 개최도시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정은성 기자

# ‘장수, 그곳에 특별함이 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 지역 역사·문화유적 등 담은 책 출간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장수의 역사와 문화관광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장수, 그곳에 특별함이 있다’는 장수의 모든 것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는 물론 인물, 산, 계곡 그리고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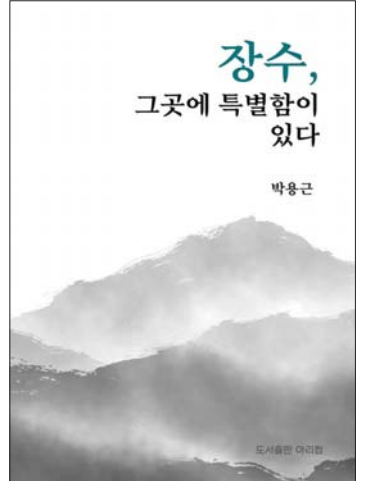
문화유적 관련 서적이거나 여행서, 혹은 산을 소개한 잡지 등에서 장수를 부분적으로 소개한 적은 있으나, 장수에 대해 전 분야를 망라하는 책은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장수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책에서는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장수기야의 역사에 대해 세심하게 조명하고 있다. 장수에서 발굴된 가야 유적을 중심으로 장수가 가야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장수를 빛낸 인물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근대화 시기 일본제국 주위에 맞서 항거했던 장수인들의 의거는 탐독해 볼만 하다.

아울러, 수천 년 동안 장수지역에서 살다 간 이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것은 장수를 찾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할, 사당, 문화유적지에는 장수인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박 의원은 “한 번쯤 장수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됐다”며 “장수를 탐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여행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 그곳에 특별함이 있다’는 25일 출간되며, 박 의원이 출간일에 맞춰 이날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알려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 ‘가람 이병기 전집’ 전기 10권 문학 부문 간행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 2024년 총 30권 전집 완간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4년 시작된 ‘가람 이병기 전집’ 총 30권 중 전기 발행 10권이 최근 완간됐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 대학의 가람 이병기 관련 전문 연구 학자들로 구성된 ‘가람전집 간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람의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북 문화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발기와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시작된 이 사업은, 2024년 총 30권의 전집 완간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간행된 전기 10권은 가람이 남긴 시조·시·수필·일기·소설·번역 등 가람이 남긴 ‘문학’ 부문이 처음으로 종합·완간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완간된 ‘가람일기’ 부문은 총 5권은 각권 8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총 5권으로 완간됐다. 일반 책자 분량으로는 10권 분량



에 달한다. 이 ‘가람일기’ 부문에는 행초서로 된 일기가 3권(총 51권 중)이 있어 이의 탈초·번역과 주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 방대한 저술의 조사·입력 작업에는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한문일기의 탈초·주해 작업은 호원대학교 유화수 교수(간행위원),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황재문 교수 등이 중심이 돼 진행했다. 간행된 문학 부문 10권 속에는, 그동안 분실

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이병기·조운·조남영 공동 시조집인 ‘3인 시조집’ 원본도 간행위원인 이경애 박사가 찾아내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전기 10권 문학 부문이 간행된 ‘가람 이병기 전집’은 그동안 간행된 우리나라 근현대 국학자들의 전집들 중 그 분량 면에서도 가장 방대한 것이다.

한편 2024년 완간 예정인 나머지 20권은 가람이 남긴 국문학·국어학·역사학·서지학·교육학 분야 등의 방대한 학술적 저술들이 종합·정리될 예정이다.

이번 전집 간행을 맡아 추진해 온 전집 간행 위원장인 김익두 교수는 “가람 선생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됐다”며 “그간 호원대 유화수 교수, 전북대 국문과 이경애 박사가 특히 고생을 많이 했다. 앞으로 전집 간행 작업에 더욱 매진해 2년 안에 완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전주문화재단,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역의 생활문화센터와 동호회, 공동체가 협력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단은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전주시생활문화센터협회와 지난달 21일 업무 협약을 체결, 생활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생활 속 의제에 대응하는 사업을 기획해 갔던 결실을 일궈냈다.

올해는 ‘생활 공감 생태 활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앞에 닥친 기후 위기를 생활문화로 풀어내는 다양한 사업을 각 권역 별 생활문화센터(인후, 우아, 진북, 효자, 삼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전주시 전역에서 생활문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연대와 협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가보조금 1억 5천만 원과 자체 부담금 3천만 원으로 지역의 생활문화공간과 단체를 발굴하고 ‘기후 위기’와 ‘생태 활력’에 맞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새만금 케이팝 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선정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케이팝 축제(K-pop Festival)’가 2022년 제10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만금 케이팝 축제는 지난해 10월 기존의 노마드 축제(캠핑형 축제)와 케이팝(K-pop)을 결합한 캠핑형 음악축제로 첫 선을 보였으며,

새만금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즐길거리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현장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온택트(화상) 형식으로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실시간 21만 명, 누적 조회수 4백만 명이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유호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